

[종합]

■ '전남대 초모라마 원정대' 에베레스트 등정 쾌거

‘무등의 아들’ 세계 최고봉 오르다

이현조·이형관씨 정상 올라... 광주·전남선 4번째

무등의 아들들이 폭풍설을 뚫고 세계 최고봉 정상에 올라섰다. 전남대학교 동문 선후배로 구성된 '2006 전남대 초모라마(에베레스트의 티베트 이름) 원정대'가 장도(壯途)에 나선지 50일만인 16일 오전 에베레스트(8,848m) 등정에 성공했다.

프린 캠프(8,300m)를 출발해 노멀루트인 북동~북동릉을 거쳐 정상에 올랐으며, 이날 중으로 노스폴인 캠프3(7,010m)까지 하산할 계획이다. 등정 대원들은 현재 컨디션이 양호하고 날씨도 좋은 편이어서 베이스캠프(5,200m)에는 오는 18일, 네팔 카트만두에는 22일께 도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현조씨〉 〈이형관씨〉

대원과 2000년 '대한산악연맹 세계 7대륙 최고봉-에베레스트원정대'의 박헌주 대원이 각각 정상에 올랐다. 특히 등반대장을 맡은 이현조 대원은 이번 등정으로 마라쿠(8,463m), 시사광마(8,027m), 브로드피크(8,047m), 지난해 남가파르(8,125m) 루팔박에 이어 히말라야 8,000m급 5개봉 정상에 오르는 기업을 토했다. 이형관 대원과 첫 히말라야 8,000m급 원정에서 최고봉 정상에 올랐으며, 대원 중 유일한 여성이자 재학생인 김가영 대원은 8,000m급 진출하는 기량을 발휘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16일 판문점 남북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열린 제4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 앞서 남북 수석대표인 한민구(소장) 국방부 정책기획관과 북측 단장(수석대표인) 김경철 인민군 중장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DJ '열차방북' 합의 주목

남북 장성급회담도 시작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6월 방북'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 실무 접촉과 철도·도로 통행을 위한 군사적 보장 합의서 체결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 장성급회담이 16일 동시에 시작됐다. 이들 고위체급의 남북대화는 북핵 6차회담이 장기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가운데 열린 것이어서 현안 해결의 단초를 제공할지 주목된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DJ 방북' 실무대표단은 이날 오전 8시에 북측지역으로 들어가 오

전 10시부터 금강산호텔에서 북측 대표단과 접촉을 시작했다. 남북은 지난 13일 제12차 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에서 오는 25일 경의철도와 철도·도로 통행을 위한 군사적 보장 합의서 체결 문제 등을 논의한 뒤 실무접촉에서는 DJ의 희망대로 6월 방북대 경의선 열차용 이용 동시시작됐다. 이와 함께 남북은 이날부터 서울 일정으로 판문점 남북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제4차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고 군 당국간 핫라인 설치와 철도·도로 통행을 위한 군사보장합의서 체결 문제 등에 대한 논의를 착수했다. /최진만기자 man21@kwangju.co.kr

평양~서울~광주 경비행기 첫 군사분계선 넘는다

6·15대추진행사 기념 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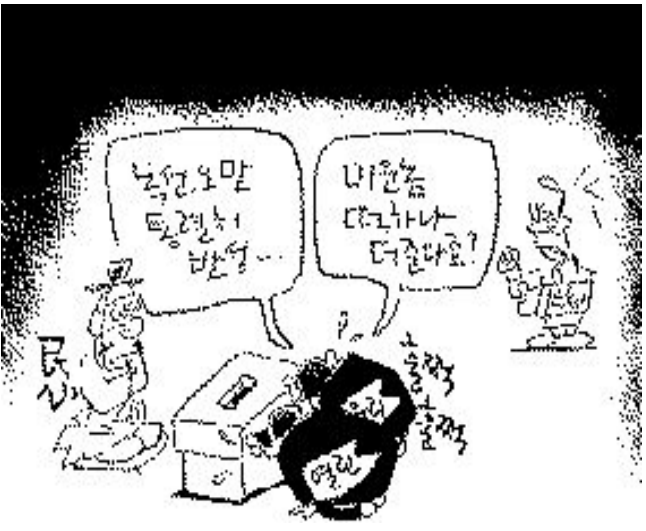
남한의 민간 경비행기가 한국전쟁 이후 처음으로 평양을 출발, 군사분계선(MDL) 상공을 넘어 남쪽으로 내려오는 역사적인 비행이 추진된다. 16일 통일부와 6·15공동선언 실천민족공동위원회는 광주에서 열리는 6·15민족통일대추진(6월 14일~17일)을 기념해 우리측 조정사가 조종하는 초경량 비행기가 평양을 출발, 군사분계선을 통과한 뒤 서울을 거쳐 광주에 이르는 의미있는 비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25일경 후 이반이 처음이다. 우리측 경비행기의 평양~서울~광주 운항은 6·15공동선언 개막을 축하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추진된다. 서울내 착륙지점은 삼성동 코엑스 부근 영동대로가, 광주는 6·15행사 개막식이 열리는 광주월드컵경기장이 유력하다. 오씨는 개막 행사에서 축하 비행을 할 예정이다. 또 오씨는 행사가 끝난 뒤 광주~서울~평양 비행도 추진할 계획이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빛의 만경

- 김중두



철쭉 드나 싶으면 속이 없고...

무안에 동양 최대 태양광발전소

1.2MW급 ... 오늘 기공식

무안군에 동양 최대 규모인 1.2MW급 태양광발전소가 건설된다. 무안군은 "17일 군 관계자와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주민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제면 광산리 일원 2만여평 부지에서 태양광발전소 기공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이 발전소는 정부 용자와 민자 합작으로 사업비 260억원이 투입되고 400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발전 능력을 갖추게 된다. 이곳에서 생산된 전력은 '개통 연 계약'으로 한전에서 구매하는 형식으로 일반에 제공하게 된다. 개발 사업자는 ㈜한라전공, 시공사는 ㈜에너지솔루션즈·㈜포철기연·㈜솔라라워 등이 공동 참여해 오는 10월 완공할 예정이다. /무안=이원희기자 whlee@

울 '사회적 일자리' 13만개 공급

올해 각 분야의 사회적 일자리가 13만3천여개 공급된다. 기획예산처는 2006년 정부 부처 주도 공급되는 사회적 일자리수가 지난해 6만9천314개의 두배 가까운 13만3천509개가 될 전망이라고 16일 밝혔다. 관련 예산도 지난해에는 7개 부처에서 1천691억원이 투입됐으나 올해는 8개 부처에서 3천39억원이 편성됐다. 올해 새로 시작되는 사회적일자리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산모신생아 도

우미 사업(38억원, 1만1천192명), 문화부의 어르신체육활동지원사업(30억원, 250명), 청소년위원회의 청소년방과후활동지원(77억원, 600명),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운영(16억원, 350명), 청소년지도사인력육성 운영지원(9억원, 100명) 등이다. 사회적 일자리 사업은 지난 2003년 노동부의 시범사업으로 시작돼 현재 자수가 2003년 2천명, 2004년 4만7천 491명 등으로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무담보 무보증' (No collateral, no guarantee) with contact number 010-3144-5830.

Advertisement for '공무원 대출 (직장인)' (Civil servant loan) with contact number 080-500-6620.

Advertisement for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Public real estate agent training academy) with contact number 361-8111.

Large advertisement for '남광주농협' (Nambgwangju Agricultural Cooperative) with detailed information about public works and recruitment.

Advertisement for '채권자의신경 및 주주권 제출공고' (Debtors' concerns and shareholder rights notice) with contact number 010-3009-6633.

Advertisement for '어음가계·보증' (Promissory note and guarantee) with contact number 010-3009-6633.

Advertisement for '가스안전, 당신의 꿈을 지켜드립니다' (Gas safety, we protect your dream) for KGS Gas Safety, featuring images of children and a gas stove.